



부활 제6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보호자 파견과 위로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또한 낙담하지 않도록 하시오.(요한 14,27)

오늘 복음은 최후만찬에서의 예수님의 고별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려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 협조자(진리의 영, 성령) 파견과 자신의 귀환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별담화가 “떠나간다”는 이별의 말로 시작되었다면, 여기서는 “돌아온다”는 위로의 말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이 과거에 말한 것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곁에서 직접 청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요한 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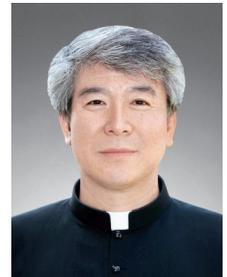
오늘 짧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명의 준수를 당부하시며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약속하신 성령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갈라 4,6)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느님을 알게 하고 성자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을 가리어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영을 따라 계속 걸어 갑시다.”(갈라 5,25)

오소서 성령이여!



김대열 가브리엘 신부 | 옥포본당 주임



제 1 독 서	사도 8,5-8,14-17
화 답 송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 서	1베드 3,15-18
복 음	요한 14,15-21

주일 진레

지난해 호주에 대규모 산불이 있었다. 이 산불로 한반도 면적의 약 85%에 해당하는 거대한 숲이 사라져버렸고 수많은 동물들이 불에 타 죽었다. 인명피해도 많았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 산불은 그냥 ‘호주 산불’이었다. 지구의 산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의 재난이 아닌 그들의 재난이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세상 어딘가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빙하가 녹고 기후가 변해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생해도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어딘가의 재난일 뿐이다.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려도, 살해되거나 자살을 해도,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아도, 일터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아도, 그렇게 죽고 다치고 병들고 빼앗기고 버려져도 그것은 그 누군가의 비극이지 나의 비극은 아닌 거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죽음과 고통과 위험이 만연해도 사람들은 태연하게 살아간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난 아널 테니까!

삶의 보편성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습 안에서 ‘보편성’ ‘관계성’ ‘공동체성’과 같은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저 수많은 ‘개별적 삶’이 모여 있을 뿐 ‘공존하는 삶’은 아닌 거다. 각자의 삶에만 치중하다 보니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은 희미해지고 그로 인해 공존능력까지 상실되어 간다. 결국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능력껏 생존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세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거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다.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온통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세상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보다 ‘코로나19’가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외 없음’ 때문이다. 보편적 위험성이랄까! 한마디로 이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가와 인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위험하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번 사태를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단계를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했는데 이 말의 어원이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야말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다.

예외 없는 위험성이라는 이 사실은 그동안 제각기 능력껏 살아가던 ‘각자 도생’을 당연시해왔던 세상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어딘가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곳의 재난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나의 비극일 수도 있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재난인 거다. 그 어딘가 혹은 그 누군가가 홀로 극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공동의 문제라는 뜻이다.

인류의 보편적 재난이라!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온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다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안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다. 지구, 인류, 이웃, 연대, 공존 등과 같이 ‘보편성’을 내포한 말들은 그동안 그 실질적 의미가 상실된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했는

데 ‘코로나19’의 예외 없는 위협이 이 말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각 나라 각 지역 사람들, 그동안은 다른 곳 다른 사람이었던 그들이 이젠 고난을 함께 나누고 공존을 위해 연대하는 지구촌 인류요 이웃으로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멜로드라마 대사 같은 이 말이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되었다. 인간이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엄청난 전염성을 통해 ‘코로나19’가 알려주고 있는 거다.

물론 이 와중에도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며 생필품 사재기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다. 확진판정 후에도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 혼란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함께 살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외 없는’ 코로나 사태의 참담한 현실이 오히려 ‘동병상련’처럼 인류애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그동안 잊고 있던 삶의 ‘보편성’ ‘관계성’ ‘공동체성’을 다시 떠올려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 채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주고 자기 맘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며(루카 6,32-34 참조)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변하듯 던져왔던 질문이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신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루카 10,36)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루카 10,37)

예수님의 물으심에 그동안은 애써 무시하고 미뤘었던 대답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거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난 아닐 테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왔던 우리들이(루카 10,31-32 참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겨우 깨닫게 된 진짜 해답이다.

사실 이 세상에 재난이 어디 ‘코로나19’뿐이던가!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뿐 그보다 더 큰 재난들이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죽음, 노동자에게는 해고가, 수험생에게는 탈락, 가난한 이에게는 비싼 병원비가, 난민들에게는 추방, 믿었던 이에게는 배신이 곧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일 수 있는 거다. 이들이 모두 ‘강도 만난 사람들’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쳐버렸을 뿐이다. 만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들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이들은 또 어딘가에서 쓸쓸히 버려지고 죽어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녕 모두를 위한 자비가 필요한 때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착한 사마리아인’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여야 한다. ‘강도 만난 사람’도 다름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마르 14,24)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출처 : 생활성서 2020년 5월호

마지막 때와 다가올 미래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이상 우리 곁에 없을 것이다. 한술밥 해먹고 어깨 걸고 뒹굴며 목청껏 노래 부르고 침 튀겨 싸우기도 해야 내남없이 친해지는 줄 알던 시대는 이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사랑, 우정, 친구, 이웃, 자매, 형제, 동료, 동지, 우리가 품어 온 이 관계의 형상들에 배어 있는 질척한 몸성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주류가 될 듯한 비대면 문화의 건조함이 디스토피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코비드-19 이후의 세상을 암울하게만 전망하고 싶지 않지만, 준비 없이 다가온 이 전지구적인 변화가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담론이 있다. 종말론이다.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코비드-19를 종말론적 심판, 신의 리셋divine reset,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를 위한 섭리 등으로 해석하여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신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학은 종말론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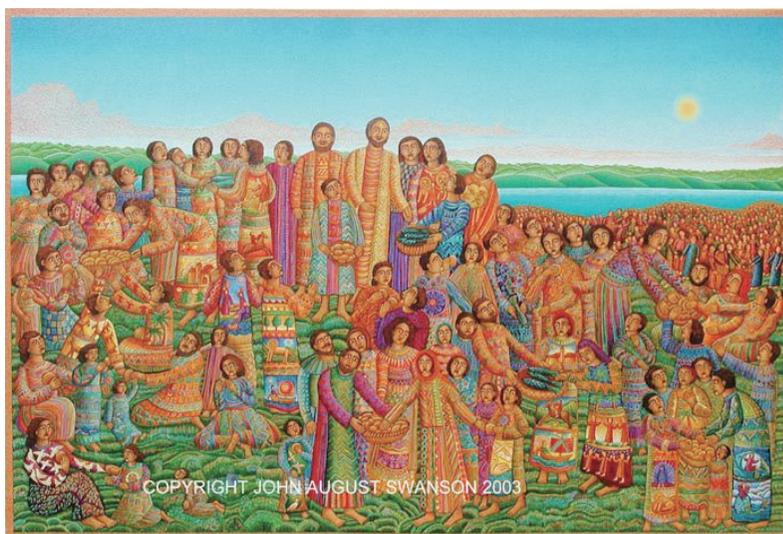
종말론eschatology의 어원인 그리스어 에스카토스ἔσχατος는 마지막 사건, 마지막 때, 가장 먼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단어인데 한국어로 번역되며 시간성이 강조되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특히 인생과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인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다룬다.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서에서조차 불분명하다. 최후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 천년 왕국, 새하늘 새땅, 천국과 연옥, 지옥 등, 종말론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모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후 심판을 통해 선한 이들은 영이 되어 천국에 남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악인은 지옥에 떨어져 육체의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종말론은 성 아우구스티노(354-430)가 그 체계를 마련했다. 삶과 죽음의 단절, 선과 악의 대립, 구원과 징벌 등 이원론적 구조가 그 특징이다. 불세출의 수사학자였던 아우구스티노는 시간, 영원, 은총 등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수려하고 장엄한 언어를 입혔지만, 그의 신학과 글은 그가 책임을 지고 관여했던 교회 안팎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노가 살았던 3-4세기는 박해가 종식되어 그리스도교가 제국 로마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시기이다. 교회는 공고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술한 교리 논쟁과 이단 논쟁을 통해 옳은 관점과 그른 관점을 나누어 신학을 구획화 하는데, 이때 정통과 이단 분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주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교회의 질서 유지와 내적 결속이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 작업의 최전방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의 이원론적인 종말론은 당시 교회의 상황과 필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원론적 종말론은 중세를 거치며 점점 현실과의 접점을 잃고,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사건 혹은 죽음 이후에 인간이 겪게 될 사건들에 대한 환상으로 위로를 주거나 공포를 자극하는 판타지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성 이레네오(130-202), 알렉산드리아의 성 플레멘스(150-215), 오리게네스(185-254) 등, 아우구스티노 이전의 탁월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종말론은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

라 통합적 세계관에 기반한다. 이들의 시간 개념은 순환적이다. 창조와 종말, 처음과 마지막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만난다. 그러기에 단절이 아니라 연속, 심판이 아니라 회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종말론의 중심에 있다. 마치 교향곡 서곡에 등장하는 테마가 몇개의 악장들을 관통하며 대단원에 이르러 전체를 하나의 의미로 아우르듯,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의도하셨던 계획, 즉 당신이 만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크신 사랑이 인간의 역사를 거쳐 표현되다 결국 완성에 이르는 우주적 화해의 과정이 종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원대한 종말의 교향곡에는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과, 생물과 미생물까지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여 화음을 이루는 상생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신학의 종말론은 대부분 아우구스티노 이전 교부들의 통합적 비전을 공유하며, 한편으로는 예수를 통해 이미 경험한 역사 속에서의 하느님 나라 체험을 강조한다. 종말을 통해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는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떠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죽은 영들을 위로하고, 멸시 받는 이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을 일깨운 예수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미 역사 속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므로 종말은 죽음 이후 혹은 마지막 때에 갑자기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환기해야 할 기억의 대상이며 경험의 대상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은 마지막 순간 하느님께 제출되는 보고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진행 중인 하느님의 종말적 비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과정을 앞당길 수도 더디게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종말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 속에 현존한다. 영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며, 언제나 과정 중에 있다.



요한 스완슨 John August Swanson, 《빵과 물고기 Loaves and Fishes, 2003》

부서진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느님 나라는 강렬하지만 아스라하다. 그러기에 늘 안타까운 목마름이다. 브라질의 신학자 이본느 게바라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한잔의 물에 비유했다. 지독하게 더운 여름날 한잔의 물은 목마름을 가시게 하지만, 이내 더 타는 듯한 갈증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한잔의 물에 대한 기억과 갈망으로 우리는 우물을 만들고 수로를 놓는다. 엄한 폭력의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다.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힌 부자 앞에 수줍게 돈봉투를 놓고 간 익명의 손길에서, 독거 노인의 집 앞에 말 없이 놓인 식료품 박스에서, 고공 첩탑 위 해고 노동자에게 올리는 연대의 손길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여전히 기억하는 노란 리본이 달린 무심한 손가방에서 우리는 짧고 강렬하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 기억은 시인의 노래 속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처럼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 순간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고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붓는다.” 하느님 나라가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또다른 희망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도 그렇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느님의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단절시킬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기억으로, 그 안에서 나누었던 뜨거웠던 사람의 기억으로, 체온을 나눌 수 없기에 더 끈끈하게 관계를 이어가며, 미래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현본당 미사재개(5월 3일, 부활 제4주일)

자가 격리된 신앙

김종필 가브리엘 신부 / 생림선교본당 주임

“신부님 미사 안 합니까?”
“예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미사가 없다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시대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당도 문을 잠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고립되었고 하느님도 성당 안에 자가 격리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당 시계로는, 2월 25일부터 공동체 안에서 미사가 기약 없이 멈춰 버렸습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미사가 사라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활준비시기(사순절)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본당에는 기저질환과 노환이 많은 노인 위주의 생림선교 공동체에서의 분위기와 체감 위험은 다른 본당과 달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집과 텃밭에서만 지내는 모습은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마음도 없이 흘렀습니다.

‘한 보름이면 끝나겠지 하며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하며 집에서 묵주기도와 조과와 만과를 바치는 것으로 예전의 습관, 초기 천주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확진자는 늘어가고 부활절 이후에야 미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평화방송과 신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두 달 치의 달력이 종이처럼 그냥 떨어져 과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부활이 지나고 다행히도 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습을 시켜놓고 잠시 교실을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잘 됐다 신나게 놀자, 다른 한 부류는 무관심하게 멍 때리고, 다른 한 부류는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자습하는 학생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자신이 알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나와 달라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지면 비로소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일상적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미사를 하는 이 당연한 고마움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잠을 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가 격리될 수 있지만, 하느님 안에 기초한 신앙(마태 7,25)은 격리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재차 체험합니다.



△ 미사 참석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용원본당)



△ 영성체 예식 중(장승포본당)



일림

교구/본당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5월 20일(수) 10:00
장소: 상남동성당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위원회/기관/단체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5월 23일부터, 동티모르 미사는 6월부터)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
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모집: 5월 셋째주일 지난 월요일
문의: 010·8525·1150

기타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하느님 자비의 시간

일시: 5월 15일부터(매주 금) 14:00~16:00

장소: 로사리오의 집

내용: 14:00 성체현시, 15:00 기도, 미사
문의: 010·7155·3498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벤트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전체 1~3등, 교구별 1등, 특별상 시상)

기간: 6월 1일~7월 10일(40일간)

모바일앱 [가톨릭]에서 참여

*자세한 내용은 www.clak.or.kr 또는 가톨릭앱에
서 확인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6/5~7, 6/16~18, 7/24~26, 7/28~30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지도: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바오로 수도회)

문의: 064·805·9890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영화 '저 산 너머'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
룬 극영화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마음발 특별한 씨앗을 키워간 꿈 많은
7살 소년의 이야기다.
상영관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아트 리죐
▶ 가톨릭마산(교구보) 지참시 할인,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참조바랍니다.

Table with 3 columns and 2 rows of advertisements. Top row includes SM 수맥홍(홍)침대, 신세계피부비뇨기과, 40년 전통 팔보효소, 예경요양병원. Bottom row includes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제주성지순례, 트라피스트 수녀원,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단 한 가지 이유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유난히 맑고 쾌청한 5월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
는 소풍과 여러 야외모임으로 곳곳에서 활기찬 분주함
이 느껴졌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의 5월은 여느
5월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화된 사회
적 거리 두기로 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바이러스 전염
에 대한 공포로 서로를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된
친교에 대한 갈증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하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일
상의 기회가 단절되고,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고 있다 믿
었던 사회적인 관계, 활동과 같은 외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진정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
는 물음이 우리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함께 '정말?'이라는 의심이 파고듭니다. 우리
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조건들로 타인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 갈라놓은 틈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내가 '나'라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
된 유일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을 때 진정한 친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친교는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며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신뢰'와 '마주
바라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향해 몸을 돌려세워야 하고 모든 관계는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뢰에서 시작되고 깊어져 갑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던 모든 장식이 떨어져 나가고 가장 가난한 모습이 되었을 때조차 나를 끝까지 지탱해주는 분은 하
느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남아있는 친구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드시려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충고
하며,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당신의 삶을 같이 나누도록 허락해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욱 깊이 결합되고, 주님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결합될 것입니다."라는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다의 글
을 통해 주님을 통한 이웃과의 참된 친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소외와 혐오의 자리가 아닌 신뢰와 배려의 자리, 참된 친교를 위해 홀로 서서 하느님을 향하는 신
앙인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서 계셨던 성모님의 도움
과 전구로, 끝날 것 같지 않는 거친 풍랑 속을 지나고 있는 인류 공동체라는 배가 평화의 항구에 무사히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이제
잘 걸을 수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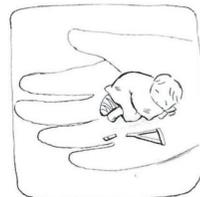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이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없구나



이제...
너에게 나만 남았구나..

나의 아이야
내 품에 안기렴